

# 스포츠 동아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sportsdonga.com 33판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 발행부수 2년 연속 1위

## ■알립니다

### 핑크물리 분홍세상과 함께 경주국제마라톤 즐기세요

10월20일 오전9시 출발...1시간 늦춰  
코스도 일부 개선해 기록단축 큰 기대



2019 경주국제마라톤이 출  
발시간과 코스를 일부 바꿔 새  
롭게 태어납니다.

서울과 다른 지방에서 참가하는 마라토너  
들의 편의와 경주 시민의 교통 불편을 덜어드  
리기 위해 출발시간을 오전 8시부터 9시로 바  
꿨습니다.

또 반환점 2개를 없애고 일부 왕복코스를  
순환코스로 변경해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가을 경주를 핑크빛으로 물들일 핑크물리  
와 첨성대, 대동원, 천마총, 봉황대, 동궁과  
월지 등을 돌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감  
상할 수 있어 멋진 인증샷과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시: 10월 20일(일) 오전 9시  
부문 및 참가비: 풀코스(4만 원), 42.195킬레이·  
하프코스·10km(3만 원), 5km(1만 원)  
참가 신청: 경주국제마라톤 홈페이지(www.gye  
ongjumarathon.com)  
문의: 02-361-1425~7, marathon@donga.com

주최: 경상북도 경주시 대한민국

공동주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협찬: SK 한국수력원자력

주관: spo-ex.com theRED COMMUNICATIONS

무궁화어, 무궁한 별로 피어 한반도의 아들을 견어내라. 뜻 깊은 광  
복절 되세요. 15(광복절), 16일 신문 쉽니다. sportsdonga.com 뉴  
스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이제 30게임 남짓밖에 안남았는데...

## 감독님, 지휘봉은 안녕하십니까?

시즌 종료 후 계약 만료되는 야구감독 5인의 운명



“나, 떨고 있나.” 올 시즌 종료와 함  
계 계약이 만료되는 KBO리그 사령  
탑들은 각기 다른 속사정을 지닌다.  
임기 내 호성적을 낸 수장들은 열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  
도자들은 어두운 표정을 숨길 수 없  
다. 계약 만료를 앞둔 키움 장정석  
감독과 KIA 박흥식 감독대행, 롯데  
공필성 감독대행, 두산 김태형 감독,  
삼성 김한수 감독(왼쪽부터 시계방  
향으로). 스포츠동아DB

키움 장정석·두산 김태형 성적표 ‘수’  
사실상 유임...재계약 조건에 더 관심

KIA 후반기 피치·분위가 좋은 롯데  
‘감독대행’ 박흥식-공필성 승격 기대

삼성 김한수 ‘나름 선방’ 속 책임공방



계약 만료를 눈앞에 뒀다는 ‘현  
실’은 같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  
다보면 각자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다.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는 13일까지  
전체 일정의 약 75% 가량을 소화했다. 팀별로  
35경기 안팎이 남은 가운데 이 결과에 계약 만료를  
앞둔 사령탑 5인의 운명이 결정된다.

올 시즌 종료 후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들의 입장  
은 판이하다. 2위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과  
3위 키움 히어로즈의 장정석 감독, 8위 삼성 라이  
온즈의 김한수 감독은 2017시즌부터 시작된 3년  
계약의 종료로 앞두고 있다. 올 시즌 중반 급히 부  
임한 7위 KIA 타이거즈 박흥식 감독대행, 9위 롯  
데 자이언츠 공필성 대행의 ‘내년’도 미지수다.

### ●김태형·장정석, 언제 어떤 계약을 맺을까?

김태형 감독은 2015년 2년 계약으로 두산 지휘봉  
을 잡았다. 계약 첫째 두산은 14년 만에 한국시리즈  
왕좌로 이끌었다. 2016년 7월, 구단은 파격적인 3년  
재계약을 안겨줬다. 비록 지난해 정규시즌 1위를 달  
성하고도 엽셋을 당한 데 이어 올해도 13일 현재 2위  
를 유지하고 있다. 4년의 성과는 분명하다.  
장정석 감독의 3년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코치  
경력도 없는 그가 처음 선임됐을 때만 해도 인신공  
격에 가까운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포스  
트시즌(PS)에서 ‘엽셋’의 감독 드라마로 평가를 바  
꿨다. 두산과 승차 없는 3위로 플레이오프(PO) 직  
행을 노리고 있다. 구단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체재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은 PS 성과에 따라 언제, 어떤 규모의 계약을  
맺는지가 관건이다.

### ●‘불투명’ 감독대행 2인, 8년만의 승격 기대?

KBO리그 역사상 감독의 자진사퇴, 경질 등의  
이유로 지휘봉을 잡은 대행은 지난해까지 25명이  
었다. 이들 중 정식감독에 임명된 사례는 14번인  
데, 2011년 이만수(당시 SK 와이번스) 감독이 마  
지막 사례다. 박 대행과 공 대행으로서는 8년만의  
승격을 기대하고 있다.

KIA는 후반기 12경기 8승5패(승률 공동 1위)로

5위 NC 다이노스에 7경기 차까지 따라붙었다. 롯  
데는 여전히 9위에 머물고 있지만, 선수단 분위기  
가 확연히 달라졌다. 공 대행의 스किन심이 힘을 발  
휘하고 있다. 역대 감독대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5할 승률을 내고도 정식 승격을 해내지 못한 경우  
도 있다. 두 감독대행에게는 확실한 ‘임팩트’가 필  
요하다.

### ●‘온전히 현장 책임만은 아닌데...’

‘삼성맨’ 김한수 감독은 앞선 2년간 PS 진출에  
실패했다. 올해도 5위와 9경기 차로 멀어졌다. 하  
지만 삼성은 김 감독 재임 3년간 매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실패했고, 확실한 프리에이전트(PA) 투자  
도 없었다. ‘왕조’ 시절과 비교하면 선수단 팀스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 김 감독 혼자만의 책임이 아  
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한화 이글스의 암흑기를 청산하고도 올해  
여론의 압박을 받는 한용덕 감독도 마찬가지다. 프  
런트의 기조에 맞춰 급진적인 리빌딩을 시행 중이  
지만 아직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한 감독은 지난해  
11년만의 PS를 이끌었고,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인  
만큼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다  
만, 김 감독과 한 감독의 공과를 따질 때 오롯이 현  
장의 책임만 묻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잠실 |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2458호(2019.07.30) (COM-2019-07-30330)

**암**이 완치된 지금

(최근 5년 이내 제외)

**질순**이 넘은 지금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사는 지금

**암재발**이 걱정되는 지금

**혈압약** 먹는 지금

**암보험** 하나 없는 지금

지금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때! (간편심사통과시)

무배당 (갱신형)  
**꼭 필요한 암보험 III**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보험금도  
드문하게  
일시금  
장액지급

스탠드 에어컨 에어컨  
상당환로 시 무료증정  
(1인용 기준) 2019.08.01~2019.08.31



•가입 후 90일내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50%)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가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이므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

